

# 아동용 그림책 수입 크게 늘었다

외국어 조기교육 붐에 힘입어 ... 95년도에 51% 증가



90년대 들어 인쇄물 수입물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서와 정기간행물의 수입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 수입물량의 대부분은 미국·일본에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92년 1억7백71만 달러어치였던 인쇄물 전체 수입이 93년에는 1억1천4백76만달러로 6.5% 증가했으며 94년에는 1억4천1백67만달러로 23%, 1억6천6백58만달러어치가 수입된 지난해는 94년에 비해 17.5%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인쇄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역시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등으로 95년 한해 미국에서 3천3백만달러, EU지역에서 2천2백만달러, 일본에서 9백만달러 등 총 7천5백만달러어치가 수입되어 전체 수입물량의 45%를 차지했다.

각종 인쇄물 중 가장 큰 폭으로 수입이 늘어난 분야는 아동용 그림책과 삽화책으로 92년 82만4천달러어치였던 것이 93년에는 90만3천달러로 9.5% 늘었고, 1백만5천달러가 수입된 94년은 93년과 비교해 11.2%가 증가해 점진적인 상승폭을 보여준다. 95년에는 3천1백97만 달러어치가 수입돼 무려 51%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을 비롯, 일본, EU지역 등지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도 다른 분야에 비해 꾸준히 늘었다. 92년 2천

6백49만달러이던 것이 93년에는 2천9백17만달러로 10.1%가 늘었고, 94년에는 3천1백97만달러로 9.5%, 3천3백40만달러가 수입된 지난해에는 1백43만 달러어치가 늘어나 꾸준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약보의 경우도 94년 12만달러이던 것이 지난해 16만8천달러어치로 40%가 늘어나는 등 90년대 들어 해마다 두자리수의 상승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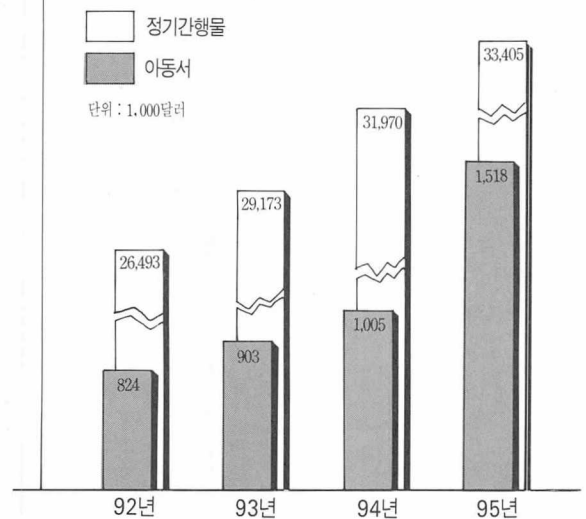
## 세계 분위기와 맞물려

아동서의 수입이 큰폭으로 늘어난 것은

세계화 분위기와 맞물려 영어 등 외국어의 조기교육 붐이 일면서 유치원 유아원 등의 영어 교재로 외국산 아동서들이 각광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내 대형 서점의 수입서적 코너 관계자들은 "수입 아동서를 찾는 고객들의 대부분이 한국인 부모들로 아이들의 조기교육을 목적으로 책을 구입해 간다"고 설명한다. 외국 아동서들이 인쇄의 질이나 제본상태 등 품질에 있어 국내서적에 비해 앞서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

정기간행물 수입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

〈인쇄물 수입 증가추세〉



최근 들어 아동그림책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컴퓨터 및 패션, 스포츠 잡지들로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팔려나가는 잡지들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교보문고 잡지 코너의 심영선씨는 90년대 들어 "컴퓨터, 패션, 농구 등과 관련된 수입잡지를 찾는 이른바 신세대 고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한다. 결국 인터넷 열풍과 패션연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NBA 농구의 폭발적인 인기 등 젊은층의 취향 다양화가 잡지 수입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허연 기자

##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

장미꽃과 책 무료 증정 ... 작가 사인회도 가져



지난 23일 세종문화대강당 앞에서 가진 기념행사.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앞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대강당 앞에서는 책 3천권과 장미꽃 1천송이, 책갈피 1만개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다. 또 소설가, 수필가 등 30여명의 작가들이 나와 사인회를 갖기도 했다.

## 도서상품권 발매 5주년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대표 김윤일)는 도서상품권 발매 5주년을 맞아 광주에 지점을 개설했다. 지난 93년 부산과 대전에 첫 지점을 개설한 이후 94년에 대구지점을 개설한 데 이어 지난 4월 광주지점을 개설,

# 뉴에이지에서 하우투 북까지

## 번역물 찾기 ⑤

조승훈

음지서적 외서부 사장

6000여개에 이르는 가맹서점과 함께 전국적인 보급망을 갖추게 됐다.

또 한국도서보급(주)는 발매 5돌을 맞아 반년간지 <도서상품권 소식지>를 창간, 도서상품권과 전국서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시민 독서의식 실태조사

부산시민은 이문열과 시드니셀던을 가장 좋아하며 '창작과비평사'를 특별히 신뢰감을 갖는 출판사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작가로는 김정환씨가, 출판사로는 '빛남'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의 영광도서(대표 김윤환)와 동보서적(대표 김두익)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부산시민의 독서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

또 이 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작가로는 김정환에 이어 김성중, 김하기, 강은교, 이해인을 꼽았고, 부산지역 출판사로는 '빛남'에 이어 '지평' '전망' '해성' '세종출판사'를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길사 독서감상문 모집

한길사(대표 김연호)는 시오노 나나미의 주요 작품에 대한 독서감상문을 공모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시오노 나나미의 전저서를 대상으로 원고 30장 분량으로 6월10일까지 출판사로 보내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로마행 왕복 항공료와 여행경비 전액을 상품으로 준다.

이 출판사는 또 시오노 나나미의 작품 속 주요무대인 이탈리아 각 도시를 여행하는 '이탈리아 문화예술기행'(7월20일-27일)을 마련, 선착순 30명을 모집하고 있다. (547-5723~4)

소설 이외에 다른 모든 분야, 즉 비소설 분야는 소설처럼 각 분야를 세분화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다 나뉘어 있다. 또 비소설 분야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현재 미국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몇개 분야를 관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소설 분야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반영된 인기있는 분야를 찾아서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 ■ 정신·영혼의 관리와 '뉴에이지'

몇해전만 하더라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비소설 분야 리스트에는 어김없이 국제정치·외교와 경제를 다룬 책이 끼여 있었다. 냉전 이후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변하고 경제체제가 바뀌면서 미국 독자들의 취향에도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요즘 미국독자들이 심취되어 있는 분야는 정신과 영혼의 관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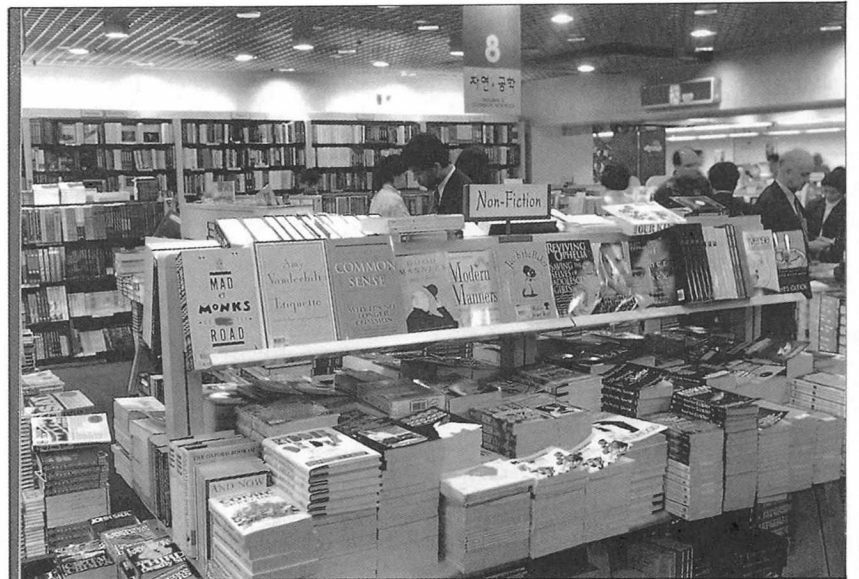
얼마전만 하더라도 관심의 대상이었던 건강·외모관리와 다이어트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흥미롭고 이해할 수 있는 추세이나 정신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주의를 요구한다. 누구나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누구나 읽고 생각하게 만드는 미국 특유의 대중문화 영향을 받아서 정신과 영혼의 문제를 학문이란 장벽에 싸여 있는 전통적 철학·종교 내지 심리학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룬다는 말이다.

넓게 해석해서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기성 철학이나 종교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통틀어 뉴에이지(New Age)라고 부르고 있거니와 (좁은 의미에서는 서기 2000년에서부터 시작되는 점성술상의 새로운 시대 즉 어쿠워리언에이지(Aquarian Age)를 말한다.) 이 분야 대부분의 책은 뉴에이지류라고 볼 수 있다.

주제는 물론 일반적인 정신과 영혼의 관리이나 신비주의, 심령과학, 무속, 임사체험(Near Death Experience·NDE)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기말이 다가오면서 이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 환경·Green 운동·GAIA 인권문제, 여성문제, 동성연애자 문제

정신과 영혼의 문제는 자연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환경문



비소설의 각 분야별 목록을 검토하는 것도 번역물찾기의 한 방법이다.

미국의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몇 분야는 크게 정신과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뉴에이지' 류, 환경·인권·여성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룬 도서들, 그리고 과학과 실용 등의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이들 분야에 따라 좋은 책을 선별하는 것도 번역물 찾기의 한 방법이다.

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이런 이슈들이 구호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변하고 있다.

### ■ 과학서적

현대인을 설득시키기에 제일 쉽고 권위있는 방법은 과학을 통해서이다.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이해하려는 노력이 대단하며, 대학교 출판부에서 시작된 이런 종류의 책이 이제는 명문출판사들의 총아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두뇌의 기능을 화학반응으로 설명하거나 영혼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것 등을 말한다.

### ■ 하우 투 북

Books in Print(종합도서목록)에는

'How'로 시작되는 책이 9천여종에 이른다. 미국의 대형서점에는 'How to' 서가가 마련되어 있다. 시작은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손수 하는 것이 싸기 때문이었으나, 손수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취미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과는 'How to'란 분야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 분야는 인기도 대단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는 소설·비소설 외에 'Advice, How-to & Miscellaneous'란 별개 항목을 두고 있을 정도이다.

### ■ 유명인들의 서적

어떤 경로를 밟든지 관계없이 미국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이름을 날린 사람은 책을 써서 큰 돈을 번다는 것은 공식화된 관습이다. 따라서 미국출판사들에게는 이런 유의 서적이 대단히 중요한 상업적 가치가 있는 분야이다. 다만 이런 유의 책은 읽을거리로서의 질적 기폭이 심해서 번역서로 선정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 ■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서적

소설에서나 마찬가지로 비소설 분야에서도 책을 쓰면 자동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가군이 있다. 번역대상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작가들이 아닐 수 없다. ❖